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0년 11월 13일 (금) -- (음력 9월 28일) -- Пятница 13 ноября 2020г. № 44 (116911)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많은 시내 도로를 재건축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레닌 거리 재건축 후.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주지사, 연방 지원금 요청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주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지사는 2021년과 2022년-2023년의 사할린 지역 예산 기획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모스크바에서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 재무부 차관 이리나 오클라드니코와와 회담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사할린주는 전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행정자치지역이다. 수년간 석유 개발을 해온 이 지역은 러시아의 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원이 절실하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노후 및 붕괴 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과 도로의 아스팔트화와 학교를 비롯한 주요 사회적 시설 건설을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리마렌코 주지사가 설명했다.

주지사는 보조금 재배당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추가 재정 지원 요청안을 러시아 연방 재무부에 제출했다. 자금 재배당은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할린주의 종합 전기 공급망의 안정성 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문제도 이해를 구하고 노후 전산망의 사고 변수를 줄이고, 새로운 이용자들의 접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노후 통신망을 재구축할 계획을 전달했다. 이리나 오클라드니코와 차관은 이 프로그램들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재정부 절차를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의제로 2021년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으로 연방 지원금 배당 가능성, 사할린 석유가스회사의 개발 억제와 관련해 지역 예산의 6억 루블리의 손실을 언급하고, 사할린 오하 지역의 노후 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에 연방 지원을 주지사는 요청했다.

사할린주 정부는 이들 문제 해결에 착수했고 주택 공공서비스 개혁의 보조 기금 연결로 추가 자금을 확보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프와는 교통 이용 접근성의 문제를 논의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항공 이용권이 적정 가격이 되도록 극동지역의 항공 운항 보조금 프로그램의 확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본토와 단절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와 산간벽지 사이에 지역 간 항공 운항 지원의 보조금 한도를 고정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항공 노선에 합리적인 동일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보조금이 요청되는 항공 노선들은 오하 - 하바롭스크, 노글리키 - 하바롭스크, 샤흐초르스크 -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카, 유즈노사할린스크 - 블라고베센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이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 방역 조치 강화

사할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정된 주민들의 입원과 보건 진료소가 제한되어 있어 고용주들에게 부분적으로 직원들을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제안을 토대로 사할린주 보건부는 65세 이상의 연령층, 만성 질환자, 호흡기 질환, 심혈관 시스템, 당뇨, 종양,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료소 이용자를 제외하고 지정 병원 입원과 보건 진료소 운영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다.

사할린주 정부 부수상 블라디미르 유슈크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특별히 감염에 취약하다. 만성적 질환과 연관되어 이 연령층의 환자들은 지속적인 의료 진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의료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년층은 특별히 자신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연령층은 감염의 위험이 적도록 일상 생활에서 격리 조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할린주 교육부는 교육기관들의 장소에 방역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세심히 감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방역은 2주에 1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하고 확진된 학생과 접촉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가정에서 학생에게 학교 대면 수업의 참석을 중지시켜야 한다.

법인과 개인 사업가들은 자체 방식과 관계없이 생산의 필요성과 기술 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을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사할린주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9000명 이상이다. 전염병 분석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밀접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집중 확산되어 조직 공동의 작업이 이뤄지는 곳에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전에 주지사령으로 기관, 기업의 직원 30%가 재택 근무로 전환하도록 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쇼핑몰 및 유흥가에 성인 동반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단신

사할린 최저 생계비 다시 상승

사할린주 정부는 2020년 3분기 최저 생계비 지표를 확정했다. 이전 수치가 발표된 8월 이후 기초 식품세트 및 서비스 가격은 15,900루블리에서 500루블리 증가한 16,400루블리다. 다른 영역의 최저 생계비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들에게는 17,500루블리(이전 16,900), 연금 수급자는 500루블리가 오른 13,200루블리, 아동들에게는 800루블리가 오른 17,000루블리가 올랐다.

2019년 3분기의 최저 생계비는 15,000루블리 이하였다. 평균 15,000루블리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은 16,000루블리, 연금 수급자는 12,000루블리, 아동들에게는 16,300루블리였다고 사할린주 주민 사회지원센터가 자료를 공개했다.

사할린주, '러시아 무역' 경연 몇 개 부문에서 우승

모스크바에서 '소매 무역 주간' 국제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소매 무역 분야의 대규모 산업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러시아 소매시장 전문가 연합회가 주최했다. 2020년 첫 포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됐다. 올해는 약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할린주는 극동 연방관구 지역들 중 유일하게 다중 방식 무역개발에 따른 높은 사업 결과를 발표해 경연 우승 명단에 올랐다. 전국 각지에서 137명의 참가자가 우승에 올랐다. 그중 사할린주는 4개 부문 - <우수 비상설 무역 대상> 부문에서 포로나이스크의 '티브니 미르(생선 세상)'매점, <우수 직거래시장>부문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주관 농산물 식품 직거래인 '오스트로와 리바(섬-생선)', <우수 무역 축제>부문은 코르사코프시 행정부 주관의 '생선 거래의 날' 과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주관의 '오스트로와 리바(섬-생선)'이 수상했다.

사할린 주내 코로나19 감염률이 증가

사할린 주내 11월 11일 하루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는 126명이고, 퇴원자는 156명이다.

11월 11일 기준 사할린주에 총 확진자 수는 9092명이고 이 중 6034명이 퇴원, 사망자 4명, 치료 중인 환자는 3054명이다.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마련 간담회

지난 11월 5일 전해철 의원과 KIN(지구촌동포연대) 주최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의 바람직한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재외동포과장 2인),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장), 법무부(국적과장),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주거복지기획처), 대한적십자사(특수복지사업소 팀장) 등 사할린 동포법과 관련한 관계 부처 모두가 참석하였다. 한편 사할린 동포들 중에는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장 권경석, 주훈준 안산회장, 문정현 인천회장, 박정자 김포회장, 이수진 남양주 회장(사할린 한인협회 위임)이 참석하였고,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성숙 교수(한림대학교)도 배석했다.

KIN 백덕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는 외교부의 진행 경과 보고 이후 동포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과 관련한 부처 간 답변과 설명을 들은 순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오랜 시간이 걸려 통과된 만큼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 하고 오늘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영주귀국 대상에 사할린 동포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2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2세 영주귀국 시 복수국적을 유지, 셋째, 사할린 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실시. 또한 한국에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영주귀국 시 부모와 같은 단지에 거주지를 마련해달라는 요청과 영주귀국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부모의 고령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특히 사할린 한인협회의 위임으로 참석한 이수진 전 사할린 한인 이산가족회 명예회장은 고령인 1세부터 순차적으로 영주귀국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오히려 악용되어 영주귀국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서도 선진국가 대열에 오른 민주국가인 한국이 왜 이렇게

사할린 동포들의 구제에 미흡한가 대해 의아해한다고 발언하였다. 임성숙 교수는 사할린에 남겨진 동포들 입장에서는 영주귀국사업이 불공정하게 보이는 점을 정부 담당자들은 생각해야 하고, 사할린 한인 관련 한국 정책의 정보가 잘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박순옥 사할린 한인협회장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원점 재검토 요청"을 낭독하였다.

이러한 동포들의 의견에 대해 외교부는 "지원 대상을 가족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사할린 동포가 생존하는 경우만 영주귀국하는 기존 정책 변경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법제처가 동반가족은 귀국 지원을 받는 사할린 동포를 전제로 한 개념이며 사망한 동포의 동반가족의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안타깝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망한 동포의 가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동포들 요청사항이 국

내 입국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적 절차 진행, 복수국적을 넓게 보장해달라는 2가지로 정리하고, "국외 국적 절차 진행은 동포분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판정 대상을 늘리는 부분, 신청 절차를 국외에서 하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수국적에 대해서는 "사할린 동포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포들에게 다 적용되어 연령이나 복수국적을 통한 혜택에 대해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국적 판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할린 동포분들이 판정 사업에 포함이 되면 국적 포기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영주귀국사업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국적 판정의 대상이므로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2021년 영주귀국 희망자는 약 800명이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필

요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밝혔고, 국토부와 LH는 부모 거주 단지에 거주지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청 시 희망하시는 지역에 1차적으로 배정하지만, 원하시는 단지에 공가가 없으면 인근 단지나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정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KIN 사무국장 최상구는 사할린 동포를 기존의 1세로 한정하여 2,3,4세는 사할린 동포가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우편지급 관련 소송이 각하결정되었는데, 최소한 자료 확보를 위한 외교부의 노력 필요하며 사할린 한인 역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연구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모 사망 동포의 영주귀국 대상 문제는 예산 확보, 법 개정 등의 문제이므로 조금 속제로 남겨두고, 복수국적 문제는 영주귀국 신청에 따라 국적 판정 대상이 되면 여지가 있어 보이나 법무부에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이 준비되고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간담회를 마쳤다. (KIN 사무국장 최상구)

이 모 저 모

사할린 도서관 희귀 사전 전시

11월16일 '사전과 백과사전의 날'을 기념해 '수많은 지혜의 장' 도서 전람회를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 11월22일은 러시아에서 '사전과 백과사전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날은 생활 속 대러시아어 해설 사전을 편찬한 블라디미르 달의 탄생일이기도하다. 사전 전람회에서는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인 '해설 사전'과 '러시아 국민 속담'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독자들에게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의 희귀 출판물과 특별 귀중품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소비에트 시대와 혁명 전 시대의 사전과 백과사전을 선보인다.

전시물 중에는 '브로크하우스와 예프론의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는 러시아 일반 백과사전으로 프리드리히 아르놀트 브로크하우스와 일리아 아브라모비츠 예프론 독점 출판 단체가 출판했다.(상트페테르부르크, 1890 - 1907년)

'브로크하우스와 예프론의 백과사전'은 세계 우수 일반 백과사전들 중 하나로 확고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전은 독일의 '브로크하우스'나 프랑스의 '라루스', 영국의 '브리태니커' 사전들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하고, 당시로서 가장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깊이 있게 서술한 차별화로 다른 사전들보다 탁월하다.

사전 전람회에서 방문객들은 '16세기-19세기의 러시아 공구 세부 사전' 과(1895년)', '소비에트 대백과사전' 두 권도 볼 수 있다.

전람회는 11월 28일까지 도서관 홀에서 열리며 입장은 무료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кажут редкие словари

Книжная выставка "Тысячи мудрых страниц", посвященная Дню словарей и энциклопедий, откроется 16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День словарей и энциклопедий празднуется в России 22 ноября, в день рождения создателя толкового словаря живого велико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ладимира Даля. На выставке можно будет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его самыми знаменитыми работами: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и "Пословицы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Также читателям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энциклопедии и словари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и советской эпох, которые хранятся в фонде особо ценных и редких изданий СахОУНБ.

Так, среди экспонатов —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Это русск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ыпущенная акционерным издательским обществом Ф.А. Брокгауз и И.А. Ефрон (Петер-

бург, 1890 — 1907 г.).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Брокгауза и Ефрона" имел устойчивую репутацию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в мире универсальных энциклопедий. Он не только не уступал немецкому "Брокгаузу", французскому "Ларуссу" или английской "Британнике", но и в чем-то превосходил их, отличаясь широтой тематического охвата и глубиной изложения новейших для того времени научных сведений.

На выставке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также увидеть репринтное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двухтомника "Подробный словарь русских гравиров, XVI — XIX вв." (1895) и первое издание "Большой Советской Энциклопедии".

Экспозици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в фойе библиотеки до 28 ноября. Вход свободный.

<원시적 러시아 : 사할린을 향한 행로>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원시적 러시아: 사할린을 향한 행로> 기획의 일환으로 거의 매일 견학, 창작 모임, 강연, 디지털 수업, 활동교실, 게임, 퀴즈대회, 영화 상영 등, 새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이 행사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0월31일 <합리적인 영화제작> 영화 프로그램으로 촬영자와 동물 화가들의 작업을 위하여 아르놀트 기스킨이 제작한 '야생의 조건들 속에서' 다큐멘터리를 관객들에게 상영했다. 11월 12일과 18일에는 스텔라나 비첸코가 제작한 등대지기들에 대해 서술하는 <오호츠크해의 마지막 로빈슨크루소> 영상 1부와 2부가 차례로 상영된다.

11월3일에는 <예술의 밤> 행사가 진행되어 이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 에너지'회사가 '그레이 케이크' 현대 화가들 중 에 카테리나 프라니츠니코와, 알렉산드르 세레첸코 두 명을 초청해 행사에 출연했다. 또한 조류학자이자 교육자인 스웨틀라나 파티호와는 사할린의 유일한 동물들의 세계와 독특한 생존력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11월 5일 인간과 새의 상생공존에 대해 <도심 속의 새들>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사 주간에 다른 흥미로운 행사로는 <사할린의 신비스런 동물들>이라는 활동교실이 펼쳐졌고 11월 14일과 15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행정부 디자인과 과장, 파벨 슈구로브, '33+1' 아트센터의 나탈리아 플로트니코와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시적 러시아: 사할린을 향한 행로> 기획 행사의 전체 편성표는 체호브 책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행사 주최 측은 행사의 일환으로 <내 애완동물이 최고> 사진 공모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린 가운데 응모 작품들은 인쇄 방식으로 박물관에 제출하거나 이메일museumbook@mail.ru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할린마니아> 단체 지식 게임과 <사할린을 향한 행로> 퀴즈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7(4242) 43-65-09)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 행사의 문제들은 표도르 포볼코위츠

관광 안내인이 작성했다. 그는 <관광산업의 우수 직업> 전 러시아 경연대회의 '우수 안내자'부문에서 우승을 거둔 바 있다.

Проект «Первозданная Россия: курс на Сахалин»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ый день в музее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ервозданная Россия: курс на Сахалин» происходит что-то новое: экскурсии,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лекци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занят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игры, викторины, кинопоказы. Эти события вызыва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инопрограмма «Разумный кинематограф» 31 октября собрала зрителей на просмотр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фильма режиссера Арнольда Гискина «В диких условиях», посвященного работе фотографа-анималиста. А 12 ноября и 18 ноября зр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первую и вторую части фильма Светланы Быченко «Последние Робинзоны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повествующего о хранителях маяков.

3 ноября в музее прошла акция «Ночь искусств»,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остоялось выступление приглашенной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дуэта современных художников «Gray Cake» — Екатерины Пряничниковой и Александра Сереченко.

Об уникальной энергетике, неповторимом животном мире острова многое знает другой специалист — орнитолог и педагог Светлана Фатыхова. 5 ноября она выступила с лекцией «Птицы в городе» о взаимопольном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и человека и птиц.. В числе других интересных событий этой недели можно выделить мастер-класс «Мистические животные Сахалина». 14 и 15 ноября его проведут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дизайн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ладивостока, художник Павел Шугуров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арт-сообщества «33+1» Наталья Плотникова.

Полный список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екта «Первозданная Россия: курс на Сахалин» размещен на сайте музея книги А.П. Чехов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напоминают о том, что в его рамках продолжается фотоконкурс «Мой питомец – самый лучший». Работы на него 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в музей в печатном виде, либо отправлять по почте на адрес museumbook@mail.ru. Также принимаются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командной игре «Сахалиномания» — запись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3-65-09) и викторине «Курс на Сахалин». Вопросы к ней составил гид-экскурсовод Федор Поволкович — победитель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й по профессии в индустрии туризм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гид».

사할린, 스포츠비용 가장 비싸다

일반 체력 강습비가 가장 비싼 곳으로 사할린주가 지역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일반 체력 단련 그룹들 중 강습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쿠르스크주이며 칼미키야 공화국에서는 수영 강습비가 전국 평균보다 2배가 저렴했다.

(8면에 계속)

사할린 화가, 사할린의 원주민의 모습을 담아



지난 10일(화)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넙흐인들의 신화로 여행>이란 기획으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이 사회적 기획은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이 주최하고 사할린주 문화부와 <엑손 네프체가스> 유한회사가 후원했다. 기획에 따라 지난 8월 말에 선정된 러시아 화가동맹 회원인 세 명 - 주명수, 노보솔로브 세르게이와 조성용-이 북방소수민족 원주민(넙흐, 우일타, 에벤크)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포로나이스크, 노글리키, 오후 구역)을 찾아 넙흐인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개월이 지나 첫 예비결과물로 작품 50점이 출품되었는데 이를 전시한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은 사할린 화

백들의 창작에 놀라워 했다. 이들은 수채화, 그래픽, 유채화, 펠트 펜, 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의 작품들을 소개했다. 전시에는 초상화도 많았고 풍경화와 정물화도 있었다. 이날 초상화 주인공 몇 명도 전시회를 찾아 언론인들의 취재 대상이 되었다. 사할린 북부 지방을 다녀온 미술가들은 이번 창작 방문으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독특한 원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잘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생기면 꼭 참여하겠다는 소회를 나누었다. 원주민 넙흐인들을 이미 여러번 취재하고 초상화를 그려본 주명수 러시아 연방 명예 화가는 이 주제로 또다시 북방소수민족 본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히고

조성용 사할린 예술전문학교 디자인학과 과정은 원주민이란 주제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재미있는 작업이 되었고 앞으로 이 주제로 큰 작품 2-3개를 더 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포 화가인 주명수 화백과 조성용 화백은 사할린주에서 창작의 장인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지방에 있는 동안 화백들과 현지 미술관 직원들은 계몽사업도 하고 주민들을 위한 활동교실도 펼치며 다양한 전시회도 소개했다고 이번 기획 담당자인 주 미술박물관 기획부 부장 니트쿠크 엘레나가 전했다. <넙흐인들의 신화 여행> 총결산 전시회는 11월 22일까지 열린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재외한인언론인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 "환영"

- "적임자 내정됐다" 재외동포 위상강화에 큰 기대
- "재외동포사회 숙원인 '동포청' 설립의 확실한 도움닫기"

대한민국 정부가 2일(월)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을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정부는 차세대 동포 비중이 확대되는 등 재외동포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진 상황에서 오랜 기간 재외동포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김성곤 신임 이사장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6년 제15대 국회에 진출한 후 4선 의원을 지낸 김성곤 신임 이사장은 국회의원 활동 당시 재외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활동과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인물이다.



성곤 신임 이사장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 텍사스 한국일보 최윤주 발행인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김성곤 신임 이사장의 임명은 재외동포 사회의 가장 큰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의 가장 확실한 도움닫기"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의 역량을 국가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에 전 세계 한인 언론인들이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한 건 그간 김성곤 신임 이사장이 재외동포사회에 보여온 열의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재외 한인 권익신장에 기여해 온 김성곤 전 의원은 전 세계 한인동포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몇 안되는 정치인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대양주 한인총연합회, 중국한국인회, 러시아·CIS 한인총연합회, 아프리카중동한인총연합회, 중남미한인총연합회 등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와 전세계 주요지역 한인회장들이 공동으로 김성곤 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1997년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23년 역사를 지닌 재외동포재단은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한민족 유대감 고취를 위한 사업을 주업무로 한다.

김성곤 신임이사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재외한인언론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베트남에서 라이프 플라자를 발간하고 있는 안치복 대표는 "오랜 시간 재외동포를 위해 진정된 마음과 큰 열정을 가져온 걸 알고 있다"며 "김성곤 신임 이사장의 취임은 재외동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호주 한호일보 고직순 편집인은 "어느 누구보다 적임자가 내정됐다"며 "재외동포재단이 세계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미국 플로리다 코리아 위클리 김명곤 대표는 "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서 의회 차원에서 재외한인언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쓰신 것을 잊지 않고 있다"며 "75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배가하여 한민족 시대를 여는 일에 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_최윤주 기자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재미있는 텔레비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는 주말 오후 텔레비전 앞 소파다. 어떤 욕망에도 자유로워진 몸은 비몽사몽 선계와 인간계를 넘나든다. 리모콘 하나로 삼라만상을 불러내지만 어느 것도 무념무상을 깨지 못한다.



가족들은 소파위의 현자가 된 아빠를 싫어하는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탐나서일 것이다. 아빠의 뉴스가 엄마의 드라마로, 아빠의 야구 중계가 아이들의 음악방송으로 바뀔 뿐이다.

낡은 소파를 천국으로 만드는 위력을 알기에 십오년 전 아내와 짜고 텔레비전을 없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이라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자는 뜻이었다. 텔레비전이 없으니 함께 노는 시간이 늘고 이야기도 많이 한다. 늦은 밤에 한 방에 넷이 나란히 누워 책을 읽는 것도 즐겁다. 십 분만 더 읽겠다며 아이들이 불끄기를 거부해도 괜찮다. 전기요금에서 텔레비전 시청료가 빠지니 그 정도는 낭비해도 된다.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뜻밖에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아빠의 억압이다! 친구들에게 뒤떨어지면 어쩔 거냐?'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텔레비전을 사겠다." 아이들은 환호했지만 조건을 듣고 조용해졌다. "대신 축구를 하자고 하면 축구중계를, 낚시를 가자고 하면 낚시 방송을, 영화관에 가자고 하면 영화 채널을 보여 주겠다."

"점, 나중에 사죠."는 첫째 아이. "아, 치사하다!"는 둘째 아이의 반응이었다. 조만간 텔레비전을 살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그래도 십년을 넘게 버틴 게 뿌듯하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과 그때 아니면 못 하는 것을 구분해서 지킨 것 같다.

텔레비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미있어진다. 채널도 많아지고 화질도 놀랍고 크기만큼 가격도 엄청나다. 나중에 수십 년 동안 놓친 재미를 한꺼번에 볼 것을 생각하면 적금을 부는 것처럼 기대가 된다. 1992년의 '모래시계'라는 프로그램부터 텔레비전을 안 봤으니 봐야할 내용이 도서관만큼 많다.

텔레비전을 없애니 오히려 텔레비전이 정말 재미있다. 미장원이나 기차역, 식당에서 문득 텔레비전을 보면 보험이나 대출 광고에도 눈을 땔 수 없다. 교육방송이나 종교 방송도 재미있다. 그렇지만 다시 빠져들면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으니 좀 더 버텨야겠다.

광주에서 김남중

앞으로의 7년간 사할린과 쿠릴에 158,100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

사할린주 고용노동청은 2021-2027년간 주 경제에 새로운 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7년간 사할린주의 기업들과 기관에 필요한 추가 인력은 15만8천100명이다. 고등교육을 마친 전문 인력은 4만100명, 전문가들 보조 프로그램에 따른 중급 전문교육을 마친 인력은 5만4천700명, 숙련된 전문 인력은 2만2천400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숙련된 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직종으로는 도소매 상점, 건설업, 운송업, 교육 및 생산 공정이고 건설, 정보, 교육기관, 컴퓨터 보안, 의료기관에는 고등교육을 마친 전공자를 더욱 필요로 한다. 건설업, 시설 관리 및 정비,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래밍, 석유 및 가스 개발지역의 개발과 운영, 기술 서비스, 자동차 수리, 간호, 요리 및 제과업에는 중등 교육 전문가를 요구한다. 이런 전망은 온라인상에서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가운데 700개 이상의 경영 주체들이 조사에 응했다고 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ля эффективной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закона

5 ноябр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совещание по подготовк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указов) по исполнению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алее –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тали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ен Хе Чер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ИН. На совещ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труктур, связанных с исполнением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 и транспорта, госкорпорация земли и жилья,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р.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ставили репатрианты в лице председателя все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Квон Ген Сока и председатели местных обществ Дю Хун Чун (Ансан), Мун Ден Хен (Инчхон), Пак Ден Дя (Кимпхо), а также Ли Су Дин (Нам Янджу), который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ставлял на совещани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ещание прошл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КИН Бе Док Хо. Был заслушан отч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ак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актов, зат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сказали свои мне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на которые были даны разъясн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гос.структур. Совещание длилось около часа.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Тен Хе Че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годняшнее совещание призвано помочь в составлении эффективных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актов по исполнению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 них нашло бы как можно более полное отражение содержания данного совещания. М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три пункта. Во-первых, кандидаты в репатрианты могут ст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2го поколения и супруг (супруга)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жив ли родитель (супруг) 1-го поколения. Во-вторых, при репатриации сохранение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я 2-го поколения. В-третьих, осуществление проекта поминовения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чес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была высказана просьба, детям, у которых родители уже уехали на ПМЖ, предоставить жилье поблизости от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ть очередность репатриаци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родителе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четн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и Су Дин,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на этом совещани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ысказал, что установление очередност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становится сдерживающим фактором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на репатриацию.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ллим Лим Сен Сук отметила,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чиновники должны учитывать, что проект репатриации кажется несправедлив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стающих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должна быть открытой.

Была также зачитана просьба-требование о пересмотре условий для исполнения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одписанное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 ответ на высказанные мн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тветили следующее: «Предлагалось сделать кандидатурой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епатри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мей,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живы ли их родители. Однако это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возможным согласно принятому закону. Нужно меня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Что касается гражданства. Во-первых, была просьба о получ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Р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за рубежом, во-вторых о сохранении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ответили, что понимают важность поддержк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и хоть не сразу, но будут изучать и рассматривать данный вопрос. Что касаето вопроса о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е, они не мог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отдельно вопрос о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отрыве от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Единственное,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опрос гражданства через систему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упрощенная). Ес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список, участвующих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упро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то им не придется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гражданства, которое они имеют и есть ре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а.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проведенному Красным Крес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на ПМЖ в Корею 800 человек, был подан запрос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На просьбу выделить квартиры будущим репатриантам в районах проживания родител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емлепользования и транспорта, госкорпорации земли и жилья был дан ответ, что при запросе буду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учитывать пожелания,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если в данном квартале не будет свободных квартир, жиль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ся как можно ближе к квартире родителей.

Ответств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КИН Че Сан Гу, отметил, что существует ошибоч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понят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оторое огранич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го поколения, и 2-е, 3-е, 4-ое поколение якобы не входят в это понятие. В 2019 году был отклонен иск по почтовым сбережениям. Нужны усил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для сбора необходимого материала, 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усилить работу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заключение депутат Тен Хе Чер отметил, что репатриация для детей умерших родителей (2-ое поколение) невозможна в связи с бюджетом, а также с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ринятия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 И это останется задачей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Проблема многогражданства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стемы опреде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Он попросил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еще раз глубоко изуч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Депутат Тен пообещал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чтобы нормативные акты, регулирующие закон были эффективны.

(Че Сан Гу, отв. секретарь КИН)

Пельмени с кимчой

Цой Виктория

– Мам, а что такое бэ гэ? - спрашивает Лея. Деревянной скалкой она раскатывает маленькие бело-серые кусочки теста, похожие на мягкий пластилин. Ловко нажимает маленькими ручками на круглую скалку, чуть наваливаясь на припорошенный мукой кухонный стол, покрытый клеенкой в красно-белую клетку. Тесто должно быть раскатано в одинаковые тонкие круглые лепешки, тогда пельмени будут красивыми.

– Это значит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поясняет мама. Смоченной в воде чайной ложкой она отделяет маленькие кусочки мясного фарша, кладет посередине, защипывает края в непрерывный аккуратный шовчик, уголки соединяет - еще один готов.

– Без ка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 Без советского. Смотри, какой неровный получился.

Лея сминая кривую лепешку в комочек, раскатывает заново.

– Когда-то давным-давно, - говорит мама, словно собирается рассказать сказку, - перед войной Сахалин был частью Японии. Когда Сахалин освободили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японцам разрешили уехать, а корейцев оставили здесь. Только в 58 году, спустя тринадцать лет, им разрешили подавать прошения о гражданстве СССР, но не все корейцы захотели его принять.

– Почему?

– Надеялись уехать в Корею

– А почему они не уехали?

– Им не разрешили.

– Ну конечно, это же вражеская страна - понимающе кивает Лея - И они до сих пор надеются уехать?

Мама вздыхает: - Да. С самой войны. Погоди, выходит почти сорок лет?

– Ну это же глупость!

Мамины быстрые руки выкладывают пельмени в ровные ряды, словно выстраивая маленьких солдат на плацу.

– Сейчас еще не так строго. Раньше

корейцы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должны были каждые три месяца отмечаться в милиции. И в другой город нельзя было поехать без специ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Однажды знакомый дедушка поехал на похороны сестры в соседний поселок. На остановке в рейсовый автобус вошел милиционер, проверил его паспорт и высадил. И дедушка десять километров шел обратно пешком. 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нова поехал, но ему повезло - проверки не было.

– А почему он не взял разрешение?

– Сестра умерла в субботу. Милиция была закрыта.

Лея хмурит брови, не прерываясь ни на секунду, раскатывает тоненькие кружочки. Мамины руки подхватывают лепешки. Фарш особый - с добавкой острой капусты кимчи, так пельмени будут вкуснее.

– Мам, но ведь он никогда не попадет в Корею. Это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ая страна, туда нельзя уехать. Почему бы не принять гражданство?

– Наверное это не очень разумно. Но для него Корея - родина. И он до самой смерти будет надеяться, что когда-нибудь вернется. Для старых людей это важно.

Лея пожимает плечами. Любуется на поднос с плотно уложенными пельменями и констатирует:

– Он просто совсем неграмотный, этот дедушка. Ему же и хуже.

Мама ставит на горячую плиту кастрюлю с водой, через пару минут бросает в бурлящую белым ключом воду маленькие пельмени, помешивает, солит. Достает их шумовкой, выкладывает горкой на бело-синее блюдо. Сверху кладет яично-желтый кусочек мягкого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оно тает, стекая золотистым ручьем.

– Пробуй, доченька. Они не глупые, они просто очень надеются.

Комментарии и отзывы присылать на почту - tsoi.oksun@gmail.com

В Сеуле организованы бесплатные автобусные туры

С 4 по 20 ноября в Сеуле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бесплатные автобусные туры «Memories in Seoul», в ходе которых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ей и культурой. Туры пройдут по трём маршрутам. Тема первого маршрута - «Путешествие в прошлое». Это посещение основных дворц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столицы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в историческом центре города. Второй маршрут под названием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также проходит по историческому центру Сеула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гида. Экскурсия и выступления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стиле 1960-х

годов. Третий маршрут «Путь мир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сещение мемори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Сеуле и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Участники экскурсии смогут узнать о тяжёлых последствиях разделения полуострова и прочувствовать ценность мира.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кскурсиях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до 15 ноября.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остав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определён путём жеребьёвки, при этом кандидатуры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в приоритетном порядке.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Юг предлагает Северу совместно провести молодё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РК предложила КНДР совместно провести зимние юношеск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2024.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исьмо было направлено в Пхеньян в августе.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лимпийским комитетом избран провинцию Канвондо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Олимпиады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без указания конкретного города. Поскольку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до разделе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й на две части, проведение Игр на Юге и Севере, а также участие в н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стало бы символо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и.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й комитет юношеск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24 года в Канвондо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3 ноября.

В РК показали считавшиеся утерянными древние буддийские картины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з РК в США были вывезены буддийские картины эпохи Чосон – Ёнсанхвесандо (영산회상도) и Сивандо (시왕도). Через 66 лет их удалось вернуть на родину, и теперь он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ублике в храме Синхынса в горах Сораксан. Длина Ёнсанхвесандо - 4 метра, высота – 3 метра. На ней изображён Будда, восемь бодхисатв и десять учеников. С двух сторон от основной картины размещаются по три небольших картины, на которых изображены десять королей, которые судят мёртвых в аду. Картина Ёнсанхвесандо была написана в 1755 году во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Ёнчжо, 21-го короля государства Чосон. Она показывает особенности буддийской живописи позднего периода эпохи Чосон. После того, как её вывезли в США, она была обнаружена 14 лет назад в Музее искусств округа Лос-Анджелес. Тогда артефакт был разрезан на шесть частей. Южнокорейская буддийская секта Чогечжон заключила с музеем договор о возвращении картин. Они прибыли в храм Синхынса в августе этого года. Доступ к композиции будет открыт по декабрь.

Число умерших после прививок от гриппа превысило 100 человек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01 человек умер в РК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м были сделаны прививки от гриппа. Эти смерти вызвали беспоконие по повод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акцин. Однако,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97 смертей имеют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ную связь с прививками. Ещё четыре случая находятся в стади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84 умерших были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70 лет, девять – от 60 до 70 лет, восемь – моложе 60 лет.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и об отсутствии прямой связи между прививками от гриппа и смертями, призывая людей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и от гриппа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зимы.

Результаты фестиваля распродаж Korea Sale FESTA лучше, чем ожидалось

Стартовавший 1 ноября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распродаж Korea Sale FESTA принёс зам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за первые семь дней мероприятия совокупная сумма оплат банковскими картами составила 17 трлн вон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8,4%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В мероприятии, рассчитанном на 15 дней,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1.800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озничных продавцов и други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одажи автомобилей увеличились на 23,3%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одажи в крупнейших сетях супермаркетов мелко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возросли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на 9,3%, а в универмагах – на 11%. Фестивали Korea Sale FESTA проводятся с 2015 года.

Названи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личности иностранца будет изменено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зменится английское название документа, удостоверяющее личность иностран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К. Как поясн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надпись Alien Registration Card будет заменена на Residence Card. Такие изменения внесены в положение об исполнении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Поводом к удалению слова Alien послужил тот факт, что оно несёт в себе отрицательный оттено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редакцию положения об исполнении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Ожидается, что уже в январ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иностранц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бновлённ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четыре приза на MTV Europe Music Awards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получила призы в четырёх номинациях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MTV Europe Music Awards (EMA) 2021 года. Песня Dynamite победила в категориях «Лучшая песня» и «Лучший виртуальный прямой эфир» за онлайн-концерты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Группа BTS также выиграла награды в номинациях «Лучшая группа» и «Приз поклон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на EMA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ыступления, снятые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по всему миру из-за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и.

(RKI)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К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43)

Россияне, живущие на такой обширной территории, кажутся более свободными, нежели корейцы.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говорят, что россияне поначалу могут показаться неприветливыми и даже грубоватыми, но когда они лучше узнают друг друга, то становятся хорошими друзьями, которые делятся теплотой и доверием.

Кроме того, корейцы восхищаются богатым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России. Мы глубоко уважаем традицию и образ жизни россиян, испытывающих гордость за это наследие, для которых культура являет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их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Корейцы, не знающ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спытывают неудобство из-за того, что на улицах, в музеях и театрах не всегда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с не может не радовать недавний запуск сервиса аудиогuida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ГМИИ имени А.С. Пушкина и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Корейцам,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в Россию, кажется странным, что часто люди на улицах курят без каких-либо ограничений. В больших корейских городах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запрета курения на улицах, и курить разрешается только в установленных местах. Думаю, что этот опыт Кореи было бы полезно изучить.

К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Ф и РК вы считаете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и взаимовыгодными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Ли Сок Пэ: В рамках "стратегии 9 мостов",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важной основой в реал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Россия ведут поиск и реализуют конкретные проекты по девяти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газов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порт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у,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судостроение, промышленные комплексы,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рыболовство. Прошло три года с тех пор, как лидеры наши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реализации инициативы "9 мостов", и мы уже можем видеть заметные результаты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Так, например, наши страны создал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и расшир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вместное участие в модернизации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Учитывая,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 политику локал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я уверен, что и в дальнейшем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обладающие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в сфере об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могут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российских проектах и расширя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ши страны имеют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технологий и инноваций. Россия имеет больш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фундаментальную науку, аэрокосмическую индустрию, атомную энергетику, разработку вакцин и т.д., 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ладает хорош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богатым опытом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технологий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и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шим странам стать хоро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и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роме этого,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медицина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экология, культура и туризм также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как перспективные обла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всегда была, есть и будет важной темой в вопрос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сквы и Сеула. В чем вы видите роль России для решения всего спектра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акова позиц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носительно возможност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Южной Коре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Ли Сок Пэ: Россия как постоянный член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и ответственный участник Договора о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твердой позиции о неприемлем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оцесс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чного мира посредство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считае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стремиться к всеобъемлющему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Россия, проявляя постоянн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и прилагая усилия, продолж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стоянные контакты с КНДР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о время саммита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НДР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преле 2019 года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держал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е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а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ирного решения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роме того, даже в этом году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Россия продолжа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включая оказа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 виде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50 тысяч тонн пшеницы, поставок тест-систем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ысоко ценит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и через тес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различным каналам,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родолжае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ной роли России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роме т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ходя из идеи достижени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Евразии в среднесрочном и долгосрочном плане, продолжает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для продвижения тре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участием Южной Коре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В частности,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и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и и 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чтобы приступить к их реализации, когда в будущем будут созданы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Пандемия стала серьезным ударом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дустрии и привела к значительному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а туристов, в том числе из России и Кореи. Недавно наши страны возобновили регулярные рейсы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При этом,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раждан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огут посещать Россию без визы, то есть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восстановлен. А когда Сеул намерен возобновить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для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или Корея не планирует возобновлять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я для россиян?

Ли Сок Пэ: Очень рад, что с 27 сентября возобновлено авиа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и дл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тменен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Въезд наши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ю был ограничен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и о запрете въезд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18 марта. Однако и в период действия этого запре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запрещало российским гражданам въезжать в нашу страну.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ной отмене виз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но это временная мера, вызванная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управления ситуацией в стране, связанной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действие соглашений о безвизовом режиме при взаимных поездках граждан не только с Россией, но и с другими 56 странами мира. Мы предполагаем,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зменением ситуаци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опрос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действия соглашения будет пересмотрен.

По опроса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более 95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осятся к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Это очень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непросто найти другую страну, к которой россияне относятся так же хорошо. В завершение интервью, пожалуйста,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скажите несколько слов россиянам...

Ли Сок Пэ: Я, как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чень рад, что россияне позитивно оценивают Корею и проявляю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нашей стране. Как я уже отметил,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таби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Россией необходимым условием является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по моему мнению, растущий интерес россиян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и интерес корейцев к России является благоприятным фактором и вселяет уверенность в дальнейшем развитии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граждане наших государств и всего мира испытывают большие трудност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если есть что-то, что наши народы приобрели даже в таких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то я бы сказал, что это чувство солидарности в стремлении сообща преодолеть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Я искренне желаю всем, чтобы ситуация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быстрее разрешилась и эпидем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нормализовалась, и граждане наших стран могли свободно совершать взаимные поездки и глубже погружаться в культуру наших народ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Москва - Сеул, РФ)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ше 65 лет обязали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Ранее это правило носило рекомендательный характер.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вести офис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 не менее 30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 на удаленную работу. В связи с ужесточением санитарных норм на островах ограничили плановую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поликлиниках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так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людям старше 65 лет.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ы усилили меры профилактики для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Жителям категории 65+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озраст и наличие хрон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делают их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ми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Поэтому мы ввод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еры для защиты гражда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т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 рассказал зампред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шук. –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один из лидеров по объему тестирования на COVID-19. Мы обследуем людей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3-4 раза чаще, чем другие субъекты Росси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выявлять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оказывать жителям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Благодаря такому подходу на островах 88 процентов людей с COVID-19 болеют в легкой форме.

10 ноября Владимир Юшук проверил наличие и условия хранения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лечения гриппа, ОРВИ и COVID-19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ети «Фармация».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аптечной сети Инны Гребеневой, для борьбы с острыми респиратор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епараты, в том числе – лекарство от COVID-19 «Коронавир». Также в достаточном количестве на прилавках – популярный у островитян «Арбидол». Причем, на склад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пании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6,5 тысяч упаковок этого противовирусного средства. Еще 12 тысяч пачек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доставят на остров с материка. Кроме того, создан запас «Гриппферона», «Азитромицина» и других необходимых во время сезонного подъема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лекарств.

Хочется обратиться к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обретают медикаменты впрок. Не нужно этого делать. Бывают случаи, когда один человек выкупает 17 пачек «Арбидола». Некоторые даже отправляют противовирусное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а материк. В результате за 2 последних месяца мы продали годовой запас этого препарата. Сейчас нуж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умать о тех, к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болел и нуждается в лекарстве. А для этого следует подходить к покупке медикаментов разумно, – отметила Инна Гребенева.

Все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ботают 4 торговых точ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птечной сети «Фармация». Еще 32 открыты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х адресами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омпании.

Напомним, по информац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8 тысяч лабораторн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 числу заболевших на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по стране 13 место. В ходе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обусловлен формированием домашних очагов инфекции и переносом их в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коллективы по месту работы.

В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лась новая клинич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тделение оснастили самым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Экстренные анализы теперь делают в течение 20 минут, плановые – за 2 часа. Выполнение та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с переустройством клинич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Отделение в учреждении существовало и прежде, но переезд в новые помещения, разделение функционал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ми нормами, оснащ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о создании практически новой структуры.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отделы,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ыми микроорганизмами, созданы санпропускники, условия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Появились два больших биохимических зала – для экстренных и для план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Теперь специалисты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рабочими процессами на одном месте, а не перемещаться из одного места в другое, – рассказала о новых условиях работы заведующая клинич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ей Наталья Ковалева.

Специалист с 10-летним опытом работы в лаборатории Дмитрий Носенко застал все этапы перевоплощения подразделения. Сегодня он работает на одном из самых современных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 модульной платформе, включающей сразу два устройства – биохимический и иммунохимический анализаторы.

Первый анализатор дает информативные показатели систем организма, второй выявляет инфекции, гормоны, гепатиты. Важ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аппарата – возможность анализа материала из одной пробирки, не требу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забор крови. Это удобно и па-

циенту, и медицинскому работнику. Из одной пробирки можно выполнить до сотни исследований, – поделился специалист.

В обширном парке техники лаборатории есть не только «рабочие лошади», выполняющие рутинные анализы. Имеются и уникальные, позволяющие сделать заключение о наличии редкой патологии в организме.

– Эксклюзивный аппарат, имеющийся в единственном экземпляре в области – анализатор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функции тромбоцитов. Устройство значительно облегчает работу врачам, нет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ведения других более сложных, разноплано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ля назначения антитромбоцитарной терапии и проведения послеоперационного скрининга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Ф.С. Анкудинова Елена Ясакова.

С открытием лаборатории здесь появился еще один новый аппарат – анализатор скорости оседания эритроцитов. Такую диагностику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одят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воспалите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при подозрении на онкопатологию. Всего теперь в лаборатории ежедневно выполняют более 200 плановых и около 100 экстр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ледующий этап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работы – установка лаборатор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обмениваться данными специалистам между учреждениями. Приобрести систему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рибыли два современных самолета для работы на местных авиамаршрутах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будут совершать рейсы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Зональное, Шахтерск. С пополнением островного авиапарк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знаком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Дл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особенно для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крайне актуален. Важно летать не только в большие города, но и в малы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Поэтому мы развиваем местную, региональную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ую авиаци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овые самолет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коротких,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маршрутах. Жител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ов смогут летать в больницу, в театр,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чаще приезжать домой.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тарифов для ж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 субсидировать авиаперевозк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иступили к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сети посадочных площадок, действовавших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ится ремонт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лощадк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К 1 декабря там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плоскостные сооружения и ограждения, модуль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ссажиров.

– В Зональном тоже есть площадка, в летнее время она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нужд лесоохраны. Теперь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ее для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В действующем аэропорту Шахтерска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не велик, поэтому мы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новый самолет небольшой вместимости, но увеличим число рейсов,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Спиченко.

Прибывшие в регион новые воздушные суда рассчитаны на 19 мест и оборудованы двумя двигателями, что жизненно важно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рейсов над водными пространствами.

– Средняя скорость – 260 км/ч. Самолеты оборудованы современной авионикой. Во время полета и захода на посадку используются спутниковые системы. Э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наибольш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У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мощные двигатели, короткое время взлета и посадки, что подходит для грунтовых полос малой протяжен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 Захар Худенко,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Авиашельф», котора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эксплуатацией новых самолетов.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удаленными район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ысит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Так, сейчас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машине время в пути составляет от 6 часов, на автобусе – около 12 часов. На самолете по данному маршруту можно добраться примерно за 2 часа.

В ливрее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отражены мотивы сахалинской природы. Техн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экономичность новых самолетов оптимальны для эксплуата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егодн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не только в отдаленны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а, но и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нициативному бюджетированию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или учащиеся из 9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стала абсолютным лидером форума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проектов.

Всего в онлайн-мероприятиях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орума по молодежному инициативному бюджетированию «Песочница» участвовали более 2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Выступления школьников

оценивали эксперты.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обсуждались реализованные в регионах практики, изуча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пыт молодежного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ебята делились секретами успеха и решали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ись в ходе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ставить своей целью улучшение облика города, региона, страны. Молодежное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дает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и позволяет найти свое место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привнести в мир что-то новое, что-то изобрести или улучшить, – отметил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ученица 11 класса из Долинска Алина Аршан.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отметили позитивную роль практик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ак,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стала толчком для изменений жизни в селе Тунгор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Созданная площадка для воркаута теперь привлекает молодежь.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улучшилась социальная обстановка. А обустройство годом поз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школы-детского сада мобильного автогородка повысило интерес у дошкольников и ребят младшего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к изучению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 Современная молодежь должна занимать активную позицию в обществе и подталкивать государство на реализацию разнообразных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 уверена Алена Леухина из села Воскресеновка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 Молодежь мож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новые современные идеи, а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им ресурсы для воплощения этих идей.

Благодаря инициативе школьников, на набережной в Невельске появилась архитектурная композиция «Сивучи» – сегодня на фон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фотографируются и снимают видеоролик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города. В селе Кировск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озведены хоккейный корт с трибунами и скейтпарк, появилась беговая дорожка с резиновым покрытием. А в поселке Ноглики на выделенные в этом году средства благоустроили парк Победы, установили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арт-объекты и обустроили сквер.

Ряд успешных проектов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и в селе Восток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пришколь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лся военный городок с полосой препятствий, идет реконструкция стадиона. Школа получила мобильный актов зал со световой и звуковой аппаратурой. А в будущем году ребята планируют благоустроить школьный двор.

–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многому нас научил. Мы узнали о тонкостях управления людьми, принципах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 отметила ученица поронайской школы №1 Валерия Лукьянова и Полина Деревянко. – Приобретенные навыки помогут нам в решении самых разных задач. Например, сейчас мы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благоустроить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Проект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стартова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Его реализация позволяет островным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 стать полнопра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бюджетного процесса. Ежегодно для 125 школ област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средства на оснаще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и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 проектам школьников – до 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ациенты с ОРВИ могут обращаться круглосуточно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1-300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сширить функционал телефонного сервиса. Причина – рост числа обращений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Кнопка «8» на линии теперь доступна для вызовов круглосуточно.

Увеличено число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лл-центра, которые консультируют по вопросам ОРВИ. Операторы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теперь отвечают на звонки круглосуточно. Время работы остальных кнопок прежнее – с 8:00 до 20:00.

По номеру 1-300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если имеются признаки острой респираторной инфекции.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расскажет, можно ли пациенту посещать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или необходимо вызвать врача на дом, проконсультирует по маршрутизации и дальнейшим действиям. В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ператор сможет передать вызов на станцию скорой помощи.

Напоминаем весь функционал телефонной линии:

- 1 – обращения по поводу записи к стоматологу или на бесплат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 2 – запись на прие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65+;
- 3 – обращения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4 – вызов врача на дом при проявлениях ОРВИ – кашель, озноб, потеря обоняния;
- 5 – выписка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 6 – запись в женск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 7 –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по вопросам прибытия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 8 – обращ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선거 우편제도 도입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절반이 선거권 박탈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 높일 '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우편투표 시행 재외선거 관련법 개정 촉구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기간
20-11-10 ~ 20-12-10

☆... 재외국민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가능하게 해주세요

뉴질랜드 거주 대한민국 국민 과상열입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투표소가 해외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는 곳입니다. 시차 때문입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뉴질랜드 재외공관 투표소 투표는 불가능했습니다. Covid-19 때문에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됐습니다.
뉴질랜드 뿐만 아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40개나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권리를 가로 막았습니다.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입니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 안해도 될까요?

청원은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월 10일(화. 한국시각)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올라온 청원글은 지난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40개 나라 65개 재

외공관 투표소가 폐쇄됐던 사실을 직시하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을 안 해도 될까"라는 뼈 있는 질문을 던진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외투표의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 1,959명이었지만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의 재외 유권자가 강제적으로 선거권을 빼앗긴 바 있다.

청원은 "지난 10년 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있었다. 공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1월 3일 본선거가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천 5백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다"며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 해야 하지만 나라 밖 국민들은 국회 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과상열(뉴질랜드 오클랜드) △정연진(미국 LA) △형주백(호주 시드니) △박남중(베트남 호치민) △하재성(영국 런던) △이진경(캐나다 토론토) △정성경(독일 베를린) △박철현(일본 도쿄)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요준(브라질 상파울로) △이경로(미국 뉴욕) △최윤주(미국 달라스) △이덕호(중국 칭따오) △정광일(한국 서울) 등 14인을 공동대표로 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제기됐다.

10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문화재청, 당신만의 특별한 아리랑을 찾습니다

아리랑 노래부르기 영상공모전 개최 공모대상 : 아리랑에 관심있는 누구나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진옥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아리랑 노래부르기 '온라인 아리랑별곡(別曲)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당신만의 특별한 아리랑'

이번 공모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아리랑' 부르기(연주)를 주제로 하는 영상으로 전 세계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역·전통아리랑 및 창작아리랑을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는 등 다양한 아리랑을 주제로 자신만의 특별한 아리랑을 3분 30초 이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는 11.2 ~ 12.1까지 총 30일 동안이며, 공모 대상은 아리랑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인 모두를 대상으로 접수받는다. 접수희망자는 공모전 홈페이지(onarirang.modoo.at)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영상공모전 운영사무국 담당자 이메일(onarirang@gmail.com), 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가길 66 4층,아리랑스쿨)으로 영상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우리 모두의 무형유산, 아리랑

2006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 하나로 아리랑을 선정했다. '시간적·공간적으로 가장 널리 불리는 민족의 노래'라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근대 이전의 아리랑은 전통 사회의 서민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개인적·국가적 차원

의 고난, 가슴속에 품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오늘날의 아리랑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에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개인, 단체 등)에 의해 전승되어 왔으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2015년 종목 지정되었다.

30팀 선정, 총 상금 1,400만원, 문화재청상 등 특별한 혜택 제공

이번 공모전 심사는 주제적합성, 전달력, 독창성 등을 고려해 총 2차례의 평가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30팀을 선정하여 대상(문화재청상), 금상(재단 이사장상), 은상(재단 이사장상), 동상(재단 이사장상), 특별상과 시상금을 수여하게 된다. 수상작은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플랫폼(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에 업로드 할 예정이며, 차년도 아리랑 관련 공연에 출연자로 섭외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우리 생활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아리랑의 소중함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영상공모전 운영사무국(02-3789-8705)으로 하면 되며, 세부내용은 한국문화재단 홈페이지(www.chf.or.kr) 및 공모전 홈페이지(onarirang.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미양, 국악신문 객원기자)

2020 온라인-конкурс по ТХЭКВОНДО (Пхумсэ)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30 한국문화원

Онлайн-конкурс по ТХЭКВОНДО (ПХУМСЭ)

ПРИЁМ ЗАЯВОК С 9 ПО 29 НОЯБРЯ

ДЛЯ ВСЕХ, КТО ЗАНИМАЕТСЯ ТХЭКВОНДО (ПХУМСЭ)

ПРИЗЫ

1 МЕСТО
Смартфон Samsung

2 МЕСТО
Смарт-часы Samsung

3 МЕСТО
Наушники Samsung
И ПООЩРИТЕЛЬНЫЕ ПРИЗЫ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в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юза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с 9 по 29 ноября проводит «Онлайн-конкурс по тхэквондо (Пхумсэ)».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йте свои навыки тхэквондо, которые вы успели за время тренировок отточить!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ценные призы, поэтому надеемся на ваш интерес и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 ▶ Организатор: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оюз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и
- ▶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 Период приема заявок: 9 ноября (пн) – 29 ноября (вс)
 - Объявл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11 декабря (пт)
 - ※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ериода судейства дата публик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может быть отложена.

-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снять видео с пхумсэ, подходящего для вашего возраста и уровня, и отправьте видеофайл и ФИО участника, а также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на почту: kinosport@info-korea.ru
 -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видео максимум 1 минута, с разрешением 1280 × 720 пикселей или выше
 - Видео должно быть записано в горизонтальном формате, участник должен быть полностью в кадре
 - Видео дол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стандартные кодеки, такие как MP4, AVI и MOV.

- ▶ Критерии участия:
 - 1) Детские группы (6-10 лет)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белый пояс - желтый пояс) – 1 ПХУМСЭ – тхэгук Иль Джан
 -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желто-зеленый пояс - си-не-зеленый пояс) – 3 ПХУМСЭ – тхэгук Сам Джан
 - Продвинутый уровень (синий пояс - красный пояс) – 5 ПХУМСЭ – тхэгук О Джан
 - 2) Взрослые группы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белый пояс - желтый пояс) – 1 ПХУМСЭ – тхэгук Иль Джан
 -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желто-зеленый пояс - си-не-зеленый пояс) – 3 ПХУМСЭ – тхэгук Сам Джан
 - Продвинутый уровень (синий пояс-красный пояс) – 5 ПХУМСЭ – тхэгук О Джан
 - ※ Обращаем ваше внимание, что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любителей тхэквондо, поэтому участники, имеющие коричневый пояс и выше н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 ▶ Призы
 - 1 место (2 человека): смартфон Samsung
 - 2 место (2 человека): Смарт-часы Galaxy
 - 3 место (2 человека): Наушники Galaxy
 + поощрительные призы

※ Призы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ашего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тхэквондо.
※ По всем ост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вы можете обращаться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kinosport@info-korea.ru)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스포츠 강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다. 이런 통계는 러시아 통계국이 스포츠 클럽들의 상업적 제안과 자체 분석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스베르 은행 자회사인 '스베르 은행 보험'이 밝혔다.

일반 체력 단련의 그룹 강습은 일주일에 1-2회 다닐 경우 국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천194루블리가 들고, 정기적 수영 강습비는 러시아에서 전반적으로 한 달에 약간 비싼 3천203루블리가 든다. 건강한 생활방식 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사할린주는 일반 체력 단련을 위한 비용이 가장 비싼 곳으로서 한 달에 5천144루블리로 전국 평균 비용보다 1.6배 비싸다. 사할린에서 수영 강습비는 3천361루블리인데 가장 저렴한 곳은 칼미키야 공화국으로 한 달에 1천454루블리다. 적정 가격으로 수영 강습이 이뤄지는 지역은 추바시 공화국이 월 1천457루블리, 모르도비아 공화국이 월 1천514루블리, 카라차예보-체르케시 공화국이 1천652루블리, 세웨로 오세티야 공화국이 1천712루블리로 나타났다.

수영 강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일주일에 1-2회 강습, 한 달에 4천977루블리가 든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5배 비싸다. 전국 수영 강습비가 비싼 지역들로는 크림 지역이 월 4천545루블리, 세바스토폴 4천250루블리, 모

스크바시 4천235루블리, 크라스노다르 변경 4천25루블리로 밝혀졌다.

일반 체력 단련 강습이 비싼 지역들로는 모스크바가 4천404루블리, 마가단주 4천200루블리, 모스크바주가 4천65루블리, 무르만스크주 3천850루블리였다.

반면 일반 체력 단련 그룹들의 강습비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쿠르스크주 월 956루블리이며 전국 평균보다 3배 저렴하다. 이러한 체력 단련의 비용이 저렴한 지역들은 세웨로 오세티야 공화국이 1천494루블리, 오렌부르크주가 1천538루블리, 아스트라한주가 1천596루블리, 탐보브주가 1천712루블리이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мый дорогой спор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регионов, где дороже всего стоят занятия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ой (ОФП). Меньше всего стоят тренировки в группах ОФП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а в Калмыкии занятия плаванием обойдутся в два раза дешевл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Дороже всего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обходятся жителям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выяснила дочерняя компания Сбербанка "Сбербанк страхование",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данные Росстата, коммерческие предложения спортивных клубов и собственную аналитику.

Занятия в группе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если ходить на них 1-2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обходятся в 3194 рубля в месяц. Занятия плаванием при такой же регулярности чуть дороже — 3203

рубля в месяц по России в цело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егиона стоимость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может немного отличатьс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самым дорогим регионом для занятий ОФП — 5144 рубля в месяц (в 1,6 раза выше средних цен по стране). Тренировки в бассейне обойдутся сахалинцам в 3361 рубль. Дешевле всего ходить на плавание в Калмыкии — здесь тренировки стоят 1454 рубля в месяц. Освоить кроль или брасс по приемлемым ценам также можно в Чувашии (1457 рублей в месяц), Мордовии (1514 рублей) и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ии (1652 рубля), Северной Осетии (1712 рублей).

Самым дорогим для занятий плаванием регионом оказалс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здесь тренировки 1-2 раза в неделю обойдутся в 4977 рублей в месяц. Это в полтора раза дорож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Выше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также стоимость плавания в Крыму (4545 рублей в месяц), Севастополе (4250 рублей), Москве (4235 рублей) и Краснодарском крае (4025 рублей).

Дорого занятия ОФП обойдутся также в Москве (4404 рубля),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4200 рублей),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4065 рублей) и 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и (3850 рублей). Меньше всего тренировки в группах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тоят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 956 рублей в месяц, это в три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Лидерами по минимальной стоимости занятий также оказались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1494 рубля), Оренбургская (1538 рублей), Астраханская (1596 рублей) и Тамбовская области (1712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бербанк страхования".

(с а с а л л и н с к о ю п р е с с - с л у ж б о ю " С б е р б а н к с т р а х о в а н и я ")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 а ж а н г (주 필) 배 워 토 리 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